‘스포츠 메카’ 보성군, 전국 규모 체육대회 ‘봇물’

장사씨름·마라톤·옵티미스트 요트 대회 등 잇따라
보성다향대축제 병행…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보성군이 오는 13일부터 장사씨름, 마라톤, 옵티미스트 요트 대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왼쪽)와 지난해 제18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목표로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13-19일 7일간 벌교스포츠센터에서 대한씨름협회 주최,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씨름협회 주관으로 ‘제2회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전은 초등부, 중등부 등 6개 종목, 단체전은 5개 종목으로 1천200여명의 선수단이 경기에 참여한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MBC SPORTS+’ 채널에서 경기가 생중계되며,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도 함께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달리는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5월4일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보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한다.

풀, 하프, 10㎞, 5㎞ 순으로 진행되는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완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어 마라토너들에게 최고의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 참가 희망자는 15일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5㎞ 종목에 참가자들은 기념품으로 런닝화를 받을 수 있으며 풀, 하프, 10㎞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또는 선글라스를 제공한다.

대회 참가자는 당일 보성군이 운영하는 율포해수녹차센터 방문 시 배번호를 제시하면 3천원이 할인된 1인 5천원에 해수 노천욕을 이용할 수 있다.

‘2024 한국옵티미스트 전국 요트대회’는 5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보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옵티미스트클래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요트협회 소속 100여명의 임원·선수들이 참가해 2개(옵티미스트, 토파즈) 종목 12개 부(초등·중등·일반)로 진행된다.

또한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무료 요트 체험을 함께 추진해 축제 기간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메카 보성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다향대축제를 비롯해 ▲보성군민의날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어린이날 ▲녹차마라톤대회 ▲전국요트대회 ▲데일리콘서트 ▲드론라이트쇼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보성=임병언 기자

여수시가 4일부터 5일까지 입항 할 국제크루즈 2척과 해외관광객을 위한 통역, 무료 셔틀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여수항에 실버위스퍼 입항 당시 시립국악단의 ‘취타대’ 환영 공연 모습. 〈여수시 제공〉

여수항에 국제크루즈 입항…관광 활성화 ‘포문’

해외 관광객 1천200여명 방문…통역·셔틀버스 등 제공

여수시가 연이어 입항 할 국제크루즈 2척과 해외 관광객을 대비해 새봄맞이 여수 관광 활성화의 포문을 연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제크루즈 2척이 입항하고 1천200여명의 해외 관광객이 여수에 방문한다.

오는 4일 여수를 찾는 국제크루즈는 세계적 크루즈 선사인 미국 ‘씨번사(Seabourn社)’의 ‘씨번 써전(Seabourn Sojourn)호’로 3만t급, 길이 198m에 달하는 전세계 크루즈 여행객들이 뽑는 럭셔리 크루즈다.

승객 정원 540명과 승무원 330명 등 총 870명을 태우고 지난 24일 대만을 출발해 일본, 부산을 거쳐 9시간 동안 여수에 머물고 일본으로 귀항한다.

이어 일본에서 출발해 오는 5일 입항할 프랑스 ‘포넌트사(Ponant社)’의 ‘르 자크 카르티에(Le Jacques Cartier)호’는 1만t급, 길이 132m의 소형 럭셔리 크루즈호다.

승객 정원 184명과 승무원 124명 등 308명이 탑승하며, 여수에 11시간을 머물며 일본 후쿠오카로 귀항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짧은 체류기간 동안 크루즈 승객들이 여수의 매력을 100% 체험할 수 있도록 시립국악단 ‘취타대’의 환영 공연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 지원 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크루즈를 유치한 여행사에게는 전세버스 임차비 1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항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힘쓴다.

신영자 관광과장은 “이번 국제 크루즈의 입항은 관광 성수기를 맞은 여수의 활력 제고는 물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여수시의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쌀, 체코 식탁에 오른다

SHINFOOD 수출 계약…운수대통 담양쌀 20t 선적

국내 소비량 감소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의 연이은 유럽 쌀수출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체코 아시안 식료품 유통전문업체인 ‘SHINFOOD’와 수출 계약해 현지 판매 전용 브랜드인 운수대통 담양쌀 20t을 선적했다.

선적식에는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이기복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장, 박요진 봉산농협장, 양남근 수북농협장, 최장기 고서농협장, 이종혁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

이번 수출은 지난 3월18일 프랑스·오스트리아 수출 초도물량 이후 두 번째 대유럽 수출 물량으로, 1년간 매달 20t씩 수출해 현지 한식당 등에 판매될 예정이다.

담양 쌀은 과거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 및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자타공인 명품 쌀이다.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미주, 유럽에 300t을 수출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2022년 준공한 담양군통합RPC는 유럽 농산물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인 농산물우수관리(GAP)관리시설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지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수출 최적화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판로 다변화를 통한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 유럽시장 공략 나서

유자·김·곡물당…유럽 식자재 시장서 홍보

고흥군은 “최근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 출정식을 갖고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은 유럽 고급 식자재 시장 공략을 위해 프랑스 파리 등 주요 유럽 도시에서 홍보 판촉 행사를 추진, 고흥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프랑스 코르시카에서 열리는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 세계총회에 참석해 고흥 유자 홍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고흥 유자와 고흥 김, 고흥 곡물당 시식회, 고흥 유자음료 시연 등 프랑스 명장 요리사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영민 군수는 “수출개척단은 고흥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유럽에 널리 알려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흥 농산물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발로 뛰면서 농어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연향들’ 최종 확정

시설 지하화·지상 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

순천시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최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연향동 814-25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을 갖춰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과도 환경 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 받았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순천시 청소자원과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5월1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전한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기술과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건설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받은 만큼 더 이상 입지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장흥군, 미래 농업인재 육성 교육

장흥군은 3일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4년도 장흥군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식에서는 학사일정과 운영지침을 전달하고, 홍의기 강사의 ‘Chat GPT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특강으로 진행됐다.

올해 장흥군은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 과정과 농업아카데미 청년CEO·블루베리 전문가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총 44회 184시간 운영되며, 과정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구성해 9개월간 이론과 실습, 현장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내용은 작목별 친환경 농업 기술·토양 관리·친환경농자재 제조 활용법 등 친환경 농업 실천 전문 교육이 이뤄진다. /장흥=노형록 기자

장성 청년 개발 ‘챔버형 스마트팜’ 日진출

최대 6배 공간 절약…경영 부담 절감

장성군은 3일 “지역 업체 ‘테라웨이브’가 생산한 ‘챔버형 스마트팜’(사진)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챔버형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절약’에 있다. ‘챔버’는 방이나 거실을 뜻하는 단어로, 그만큼 많은 공간이 필요치 않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가로, 세로로 겹겹이 위치한 ‘작물 베드(bed)’를 고유의 순환 시스템으로 연결해 농업인이 원하는 곳까지 손쉽게 옮긴다. 한자리에서 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으며 온·습도, 일조량 등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제어기술도 갖췄다.

일반 스마트팜 대비 1/6 규모 부지에 조성할 수 있는 데다 1인 농작업이 가능해 경영 부담도 줄어든다. 작은 공간과 뛰어난 효율성을 강조하는 일본 시장 진출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영철 테라웨이브 대표는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줄여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농산물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도 ‘챔버형 스마트팜’을 통해 월 평균 10만 뿌리의 새싹삼을 재배하는 농부다.

최근 ‘챔버형 스마트팜’ 시연회에 참석한 김한종 군수는 “참신한 발상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 진흥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군도 ‘임대형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조성과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이 스마트팜 기반과 온실, 에너지시설 등을 갖추면 청년농업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장성=김문태 기자